

■ 툼베스의 삶과 문화 - 페루의 툼베스 여행(2)

이 호 인

페루의 파티 문화

아우구스토의 형이 도착하여 잠시 인사를 나누고 통성명을 한 뒤에 아우구스토의 본 집으로 향했다. 아우구스토의 형 이름은 베를리. 어쨌든 집에 도착하니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고기를 굽고 있던 아우구스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아우구스토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다며 따뜻하게 환대해주셨다. 특히 처음 뵈는 아우구스토의 아버지는 정원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홀로 심취해 춤을 추시는 등 무척이나 쾌활하신 분이였다. 예상치 못한 후한 대접에 배불리 고기를 먹고, 베를리가 안내해준 빈방으로 들어갔다. 조금씩 짐을 풀고 있는데 베를리는 오늘 이웃집에 파티가 있으니 함께 가자고 했다. 내 어찌 파티에 빠질쏘냐. 이미 만약을 대비해 정장바지에 와이셔츠 한 벌은 가지고 온 터였다. 물론 사실 혹시 교회를 가게 될 경우를 생각한 것이었지만.....

파티는 옆집 아주머니의 생일 50주년 파티였다. 페루에서는 한국의 환갑잔치마냥 50세 생일을 굉장히 중요한 생일파티로 여긴단다. 저녁 8시에 시작한다고 하여, 7시부터 부랴부랴 준비해서 7시 40분쯤 거실로 나왔다. 그래도 중요한 파티라는데 이런 것은 시간을 지킬지도 모른다는 나의 기대는 반바지와 나시 차림에 소파에 반쯤 기대어 TV를 보고 있는 베를리를 보자마자 와



베를리의 옆집 아주머니의 50주년 생일파티, 멋진 모자를 쓴 주인공 아주머니와 미리 섭외한 여자 진행자 그리고 와인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멋진 아우구스토의 아버님

르르 무너져버렸다. 어쩔 수 없이 나도 소파에 앉아 이해도 안 되는 코미디 프로를 보며 한 시간 반 정도를 기다렸다. 스페인어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어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코미디이다. 중간 중간 무슨 말을 하는지 직역이 된다 해도 난 도대체 그 말이 왜 웃긴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언젠가 내가 코미디를 이해하는 날이 온다면 바로 그 날이 스페인어를 정복한 날이 될 것이다.

저녁 9시 반이 넘어 갈 때쯤 파티장으로 갔다. 파티장이라고 해봤자 사실 5층짜리 건물의 옥상을 파티장으로 꾸며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마치 한국에서 아이들 생일파티를 위해 풍선과 리본 몇 개로 꾸며놓은 것과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비록 장소는 집 옥상일지라도, 밴드와 사회자를 섭외하며, 아침부터 음향기

기를 비롯한 갖은 도구를 사용하여 꾸며놓은 정말 멋진 파티장이다.

이웃집 지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파티의 주인공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은 일제히 관심을 보이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곤 했다. 지나가다 중국 사람들은 많이 보았겠지만, 실제 이런 이웃의 파티에 온 동양인은 흔치 않았으리라. 내가 한국인이라고 대답하자, 한 아주머니가 “쌘쑤, 쌘쑤.”이라고 하며 막 박수를 쳤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었지만, 드라마라는 단어를 듣고 이내 알아차렸다. 당시 페루에서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한국드라마가 ‘Mi Adorable Samsun’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본격적으로 파티가 시작되자 주인공인 아주머니와 식구들은 사진에서 보이듯이 한껏 멋을 부리고 나타났다. 주인공인 아주머니가 등장하여 “아름다운 밤이에요”라는 멘트를 시작으로 그날 파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다. 미리 섭외한 여자 진행자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끝날 때마다 흥겹게 박수로 응수하는 아웃들의 모습은 예나 한국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페루의 흥겨운 음악들이 흘러나온다. 여담으로 과거에는 살사가 가장 큰 인기였는데, 요즈음에는 콤비아라고 하는 콜롬비아가 원조인 음악형식이 가장 큰 인기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음악장르이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페루의 유명한 콤비아 그룹 ‘Grupo 5’가 콘서트도 가졌다고 한다. 어쨌든 그렇게 살사와 콤비아 같은 음악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흥겹게 적셔주며 계속해서 흘러나온다.

어느 정도 인사말과 그에 대한 화답으로 선물세례와 볼 키스 등이 오고가자 이제 비로소 미리 준비된 다양한 먹거리들이 나왔



베를리의 옆집 아주머니의 50주년 생일파티에서 연주하는 멕시코 스타일의 3인조 밴드

다. 한국과 같이 한 상에 차려진 것이 아니고 파티를 도와주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풍성하게 음식이 담긴 넓은 접시를 가지고 초대받은 이웃들 한 명 한 명에게 돌려 음식을 권하고 있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과 함께 맥주와 페루의 전통 술 피스코와 같은 것들을 마시며 난 이미 이웃집 남자들과 10년 지기 친구가 되어 있었다. 페루에서 가장 맛있는 맥주라 하면 단연 ‘쿠스케냐’라는 맥주를 들 수 있다. 쿠스코 지방의 물을 사용하여 만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짓궂은 이웃집 남자들은 내게 쿠스케냐가 맛있지 않냐고 묻고는, 까르르 자지러지게 웃기도 했다. 맥주 이름이 ‘쿠스코 출신의 여성’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자기 들끼리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다. 계속 흐르는 신나는 음악과 먹거리, 그리고 사람들의 끊이지 않는 웃음 속에서 흥겨운 춤판이

벌어진다. 같은 연령끼리만, 혹은 부부끼리만 추는 것이 아니고 나이고하를 막론하고 다함께 흥겹게 짝을 바꿔가며 춤을 춘다.

흥이 극에 다다를 즈음에 밴드가 등장한다. 이날 밴드는 한국의 개그콘서트에서 희화화돼서 개그소재가 된 멕시코 3인조 그룹 “야이야이야이 야이야~야이야이야 호~” 하는 바로 그 그룹이었다. 흥겨운 연주와 추임새, 그리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의 여자의 흥겨운 음악 속에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된다.

나 역시 그 분위기에 고조되어 밴드에게 모자도 빌려 써보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렇게 한 새벽 4시까지 흥겨운 음악에 취해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누며 술잔을 나눈다. 하나 둘 씩 잠에 못 이겨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해서 춤을 추며 흥겨움에 젖어있는 사람도 있다. 나는 새벽 4시쯤 아우구스토의 형과 집으로 나섰다. 하지만 그 때까지도 파티가 끝나지는 않았었다.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파티문화가 참으로 새로웠다.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추태를 부리는 사람은 없다. 춤을 추며 소위 추잡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도 없다. 단지 있는 그대로 흘러나오는 음악의 흥겨움에 온몸을 던질 줄 알고, 그 안에서 흥겨운 리듬에 맞춰 온 몸으로 즐거움을 발산할 뿐이다. 정말 흥겨움과 정겨움이 가득한 이날의 파티는 라틴의 향취를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매우 인상적인 파티였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가족적이면서 이웃끼리 따뜻하고 정겨운 정을 나누고, 술을 마시면서도 추한 모습으로 취하거나 남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행동하는 것 없는 파티, 또한 나이고하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흥겹게 서로 대화하며, 처음 본 사람들끼리도 금세 친구가 되어 춤추고 어울릴 수 있는 이러한 파티문화가 생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푸에르토 피사로

푸에르토 피사로와 이슬라 델 아모르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나는 툰베스에서 유명한 폰타살이라는 해변을 가보기 위해 베를리를 찾았다. 폰타살에 가보고 싶다는 나의 말에, 거기 가기 전에 먼저 가보아야 할 곳이 있다며 점심 먹고 자기가 데려다 준다고 한다. 친절은 고마웠지만, 더 이상 너무 신세를 지게 되면, 괜히 여행 그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신경써야하는 부담감이 많아질 것 같아 그냥 길만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베를리가 추천한 곳은 이슬라 델 아모르라는 곳이었다. ‘사랑의 섬’이라는 이름만큼이나 낭만적인 곳이고,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굉장히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곳이라며 꼭 가보라고 하였다. 파도가 잔잔해 수영하기도 좋다는 말에 수영복까

지 챙겨서 나왔다. 이슬라 델 아모르로 가는 버스를 타자, 역시 시골이라 그런지 닭, 개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타는 현지인들 덕택에 후각이 거의 마비상태까지 치닫고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고 10분 남짓 지났을 즈음 버스기사는 내가 항상 듣는 질문으로 내게 말을 걸어왔다. 한국인이라고 대답하자, 툼베스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며 한참을 도시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내게 이슬라 델 아모르를 가기 위해서는 푸에르토 피사로라는 곳에서 배를 타야하는데, 자기가 싸고 좋은 데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다. 일반 여행객들은 통상 이런 경우 괜히 바가지 씌울 것이 겁나고, 뭔가 위험할 거라는 괜한 걱정애 사로잡혀 슬그머니 한 발짝 빼곤 한다. 물론 반대로 백인의 관광객들이 하는 말엔 무한한 신뢰를 보내기도 한다. 하얀 피부의 외국인들은 안전하고 신뢰할만하며, 까무잡잡한 피부의 현지인은 모두 돈 뜯어낼 궁리만 하고 위험하다는 것은 누가 만든 법칙일까?

만약 다른 곳과 한번 비교해보고 운전기사 아저씨가 일러준 데가 더 비쌀 경우 안가면 그만이다. 소개해 준 곳 갔다가 다른 곳으로 갈 때의 민망함은 한국이나 다른 곳도 어차피 똑같은 것 아닌가. 보통 현지인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진정으로 현지인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해본 사람은 없다. 안내 책자와 미디어를 통해 왜곡되게 접한 것을 신뢰하고 있을 뿐. 어쨌든 난 푸에르토 피사로에 도착하여 버스기사 아저씨를 따라 나섰다. 푸에르토 피사로라는 이름은 잉카제국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리가 툼베스 쪽을 통해 들어왔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한다.

버스기사 아저씨를 따라가니 어떤 아저씨가 노로 젖는 배 한 척 옆에 앉아 있었다. 둘이서 이런 저런 말이 오가고, 나에게 이슬라 델 아모르까지 왕복 배 샅을 제시하였다. 그럼 잠시 둘러보

고 오겠다고 하니, 조금 더 싼 가격을 제시하고는 둘러보고 오라고 한다. 남미에서는 워낙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곳에도 알아보는 건 민망해 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서너 군데 물어보니 처음 버스기사 아저씨가 소개해 준 데가 가장 가격이 낮았다. 곧장 다시 그 곳으로 돌아가니 배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 아저씨의 배를 타기로 정하고 잠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인인데 리마에 살고 있다고 하자, 자기 친척이 리마에 있어서 몇 번 가보았다며 리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던 중, 어디선가 다른 아저씨 한명이 다가와서 아저씨에게 말을 걸었고, 아저씨는 잠시 맥주 한잔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주는 맥주 마다할 내가 아니다. 바로 따라가 보니 배 주인의 친구들이 기타치고 노래 부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배 주인은 마치 내가 오래된 친구라도 되는 양 자기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온 친구라며 소개해주었고, 모두들 나를 매우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렇게 난 전혀 예정에도 없던 피사로 항구에서 뱃사람들과 즐거운 맥주 타임을 가졌다. 페루 사람들과 처음 관계를 맺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 사람들은 외부인, 혹은 처음 보는 사람 등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 물론 아직 시골 중에서도 도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산간 지방 원주민들은 외부인에 대해 다소 겁을 먹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페루 현지인들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 순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누구나 친구(amigo)가 되고, 누구나 함께 노래를 부르며 어깨동무를 하는 사이가 된다. 서로가 모두 알고 있는 하나의 무리에 낯선 이가 등장하면, 한국처럼 대충 인사하다 또 이미 알고 있었던 자기들끼리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그 낯선 한 명과도 순식간에 친한 친구가 된다. 이러한 관계에는 나이도 상



푸에르토 피사로에서 만난 뱃사람들. 맥주를 마시며 흥겨운 노래를 불렀다.



푸에르토 피사로와 바다에도 엄청 많았던 펠리컨의 모습

관없고, 국적도 상관없다. 기껏 내가 한국인이라고 말해봤자, 맥주 한잔 들이키고 나면 바로 “치노, 치노”하고 부른다. 내가 한국인 것을 까먹고 중국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굳이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 보자면, “니가 한국인이면 어떻게 중국인이면 어떠냐. 어쨌든 새롭게 등장한 우리 아시아인 친구 아니야! 그럼 됐지 뭐! 마셔~건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인사정도만 하고 그다지 바로 친밀하게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자, 격하게 손사래 치며 여긴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린 모두 ‘친구’라며 내 어깨를 부여잡고 노래를 부른다.

한참을 맥주를 마시다 보니 한 시간이 훌쩍 넘었다. 한 시간 만에 친구가 되어 함께 맥주마시고 노래 부르던 사람들과 아쉬운 작별의 포옹을 하고 배가 있는 쪽으로 갔다.

‘한국이었으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들……. 하지만 페루에선 누가 뭐래도 내 친구들, 언젠가 또 볼 날이 있기를…….’

배를 타고 이슬라 델 아모르로 향하는 동안 배 주인은 아직 툼베스는 유명한 관광지가 아닐뿐더러, 그래도 툼베스의 만코라나 폰타살과 같은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은 꽤 있는데, 이곳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했다. 그래서 맥주 계속 마시고 살려면, 계속 돈 많이 벌어야 하고 다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을 싸게 받더라도 관광객을 늘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바가지 씌우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슬라 델 아모르로 가는 동안 파도는 베를리의 말대로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매우 잔잔했다. 한 가지 신기했던 건 펠리컨이 엄청 많았다는 것이다. 정말 마치 눈앞에서 ‘생태탐구: 지구는 살아있다’라는 제목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다. 수많은 펠리컨들이 항구 부근에서 떼 지어 다니고, 물 위로 날아다니며 쏜살같이 내려와서 물고기를 입으로



이슬라 델 아모르

덥석 물고 날아가기도 했다.

아저씨가 직접 노를 저어 한 20분 정도를 가니 이슬라 델 아모르가 나왔다. 그런데 이진 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았다. 그냥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모래를 퍼다 날라서 만든 작은 쉼터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모래로 된 섬 위에 세비체를 파는 레스토랑과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잔잔한 멜로디, 나무 사이 매달려 있는 그물침대와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잔잔한 바다가 형성되어 환상적이지는 않아도 정말 매력적인 분위기를 발산하는 곳이었다. 아저씨는 한 3시간 후쯤 나를 데리러 돌아오겠다고 했다. 밥도 먹고 해수욕도 좀 즐기고 쉬고 있을 때 쯤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중남미 사람들은 정말 악의가 없어도 쉽게 잊어버리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꼭 날 데리러 와야 한다는

약속을 세 번이나 받아내고 나서야 아저씨를 돌려보냈다.

먼저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페루의 가장 유명한 요리인 세비체를 시켰다. 사실 레스토랑이라고 해봤자 나무판자 몇 개로 막아놓은 주방 하나 있고, 모래위에 나무로 된 테이블과 의자가 전부였다. 하지만 역시 바다로 둘러싸인 섬 안의 레스토랑인 만큼 물고기는 매우 신선했다. 거기에 ‘피스코 샤워’까지 한잔 시켜서 마시고 나무 그늘 아래 설치된 그물 침대에 누워있으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었다. 이 그물 침대를 한 번도 제대로 누워보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편안한지 정말 모를 것이다. 나도 가끔 영화로만 봤을 때는 전혀 편해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직접 누워보니 다시 일어날 엄두를 못 낼 만큼 편하였다. 툼베스에서 리마로 돌아갈 때 꼭 그물침대 하나 사서 갈 것을 다짐하면서 일어나 해변으로 가보았다.

분명 바다인데 바다색이 마치 강물처럼 약간 갈색 빛이 났다. 파도가 거의 없고 강한 햇빛 때문인지 수온도 적당하고, 정말 베를리 말대로 수영하기는 매우 좋아보였다. 대충 나무 몇 개로 가려진 화장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본래 수영을 좋아하는데도 이런 저런 이유로 몇 년 째 수영해본 적이 없었던 탓인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물속에 있었다. 한참을 물속에 있다가, 살이 타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아서 조금 쉬기 위해 나왔다. 모래가 얼마나 햇빛에 달구어 졌는지, 발을 디딜 때마다 발이 뜨거워서 총총걸음으로 겨우 의자가 있는 데까지 왔다. 리마보다 더 적도에 가까운 곳으로 와서 그런지 햇빛도 더 강한 것 같았다.

의자에 앉아서 음료수 하나 시켜서 온 몸에 수분을 보충시켜주고 아저씨를 기다렸다. 내가 아까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아놓은 덕인지 제시간에 맞춰서 아저씨가 와주었다. 다시 배를 타고 푸



아우구스토의 아버님이 만들어주신 아로스 콘 마리스코(arroz con marisco)

에르토 피사로로 갔다. 아저씨에게 성의껏 팁을 주고 버스정류장으로 가려던 찰라, 아저씨가 꼬질꼬질한 종이 하나에 본인의 연락처와 이름(Ismael Tica Quispe)을 써서 주었다. 다시 툼베스에 올 일이 생긴다면 꼭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이스마엘 티카 키스페, 잊지 않을게요. 아저씨.’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툼베스 시내로 돌아왔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도착한 줄도 모르고 잠들어 있던 것을 버스기사 아저씨가 깨워주어서 내릴 수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서 아우구스토의 본집으로 향했다. 아우구스토의 부모님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페루 남자들은 한국 남자들보다 더 요리를 잘하는 것 같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일단 직접 요리에 참여하는 횟수 자체가 한국보다는 더 많은 것 같다. 어쨌든 저녁메뉴는 내가 너무나 좋

아하는 ‘아로스 콘 마리스코’였다. 아우구스토의 어머니는 자기 작품이라며 아주머니보다 당신이 더 요리를 잘하신다며 웃으셨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다 함께 와인과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일 아침엔 내가 떠날 것이기 때문에, 아예 걱정하고 밤새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아우구스토의 형 베를리에게도, 또 그의 부모님에게도 너무나 고맙다는 말을 계속 되뇌며 몇 번이고 “살룻~!”을 외쳤다.□

이호인 -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재학
